

KOCHAM Economic Briefing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USA, Inc

2015년 6월 19일(금)

【 산업·시장 동향 】

- 1) 아마존, 미 정부에 드론 규제완화 요구
- 2) 미 노동위, “우버 운전기사는 정직원” 판결
- 3) 피아트-크라이슬러 신차 품질 '망신', 한국 기아현대차 세계 2·4위

【 해외 경제 동향 】

- 1) BOJ, 양적완화 규모 유지, 예상 부합
- 2) 중동, 유제품 수요 급증
- 3) 중국, 대미 수출 증가세, “내수부진 돌파구 가능할까”

【 산업·시장 동향 】

1) 아마존, 미 정부에 드론 규제완화 요구

- 지난 17일 AP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의 글로벌 공공정책 부사장 폴 마이즈너는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기술 개발 중이며 미 정부의 드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 그는 아직 아마존이 주문 접수 30분내 배송하는 체제를 갖추진 못하고 있지만 규제가 풀릴 때쯤이면 가능할 것이라 밝힘
 -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자동차로 매장까지 가서 구입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직접 배달보다는 작고 전기를 이용한 드론이 빠르고 효과적이라 밝힘
- 반면, 이 같은 드론의 장점에도 사생활 침해 외에 안전과 보안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 미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드론이 항공기나 공항에 접근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달 25건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AA는 지난 2월 드론의 상업적인 이용을 강력 규제하는 법안을 요구
- 한편, FAA의 부청장은 정부에서 드론 비행 허용을 확대하기 전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연내에 이 같은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

2) 미 노동위, “우버 운전기사는 정직원” 판결

- 미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는 차량 공유 앱 업체 우버의 차량 운전기사들을 계약직이 아닌 정직원이라고 판결을 내림

- 따라서 앞으로 우버의 운영비가 급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업종을 비롯한 ‘주문형 경제’ 기업에 큰 파장이 예상
- o 우버는 미국에서만 차량 기사 약 20만 명과 차량, 연료비,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별 계약해 고용하며 적은 운영비로 경영해 왔으며 스마트폰 서비스만 제공하는 업체라 스스로 규정, 차량 운전기사는 계약직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옴
- o 반면, 지난해 7~9월 우버 차량을 운전한 한 여성이 우버에 추가 수당 요구를 거절당하자 캘리포니아주 법원 노동위원회에 제소, 노동위는 우버 차량 운전기사를 정직원으로 인정하며 회사 측에서 총 4천1백52달러를 지급할 것을 지시
- o 한편, 우버는 지난 2012년 노동위가 자사의 운전기사를 계약직으로 규정했다며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3) 피아트-크라이슬러 신차 품질 '망신', 한국 기아·현대차 세계 2·4위

- o 지난 17일 WSJ은 미국의 마케팅정보업체 J.D.파워가 2015년 자동차 초기품질조사(IQS: Initial Quality Study)에서 역사적으로 품질이 뒤쳐진 것으로 인식됐던 브랜드들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
- 이탈리아 피아트가 미국 크라이슬러를 합병해 출범한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신차 품질에서 체면을 구긴 반면 과거 밑바닥이라는 인식에 시달렸던 현대차기아차는 세계 수위권의 품질을 지닌 신차들을 선보이며 최고의 대량 판매시장(mass-market)브랜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
- o FCA 산하 피아트·크라이슬러·지프는 조사 대상인 33개 브랜드 가운데 IQS순위에서 각각 33위·31위·29위를 기록

- WSJ는 IQS가 자동차업계의 많은 품질 테스트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조사로 이는 8만 4000명의 소비자가 신차 구매 후 첫 3개월이 지난 후 경험한 문제들을 조사해 작성되었다고 소개
- o 한편, 독일 스포츠카업체 포르쉐가 가장 결함 없는 브랜드(80.1위)로 이름을 올렸으며 기아차(86건.2위), 현대차(95건.4위), GM 산하 쉐보레(101건.7위), 토요타(104건.10위), 포드(107건.12위), 혼다(111건.14위)를 비롯한 대다수 주류 브랜드들은 모두 평균보다 적은 결함이 발견

【 해외 경제 동향 】

1) BOJ, 양적완화 규모 유지, 예상 부합

- o 지난 19일 일본은행(BOJ)이 이틀간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며 본원통화를 연간 80조엔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 블룸버그가 회의 전에 설문조사한 35명의 이코노미스트들 또한 BOJ가 양적완화 규모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던 결과
- o 앞서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물가상승세가 당초 목표와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BOJ는 지난 4월 물가 상승률 2% 달성 목표시기를 당초 내년 3월 끝나는 올 회계연도에서 2016회계연도 상반기로 연기
- o 한편, 전문가들은 BOJ가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예상
- 다케다 아츠시 이토추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지 않고 수출과 소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위험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분석

2) 중동, 유제품 수요 급증

- 지난 18일 FT는 국제 유제품 시장이 중국의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으며 가격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중동 지역의 유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
 - 또한, 중동의 유제품 수요는 아직까지 중국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뉴질랜드와 유럽, 아르헨티나 등 낙농업계가 발달한 국가가 눈길을 주기에는 충분하다고 전함
- FT는 중동 국가들 중 특히 석유 산유국들은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며 유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
- 또한, 중동 지역에 대한 글로벌 유제품 회사들의 투자도 증가
- 한편, FT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최근의 유가 하락이 중동의 유제품 수요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함

3) 중국, 대미 수출 증가세, “내수부진 돌파구 가능할까”

- 지난 18일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달보다 7.9% 증가했다고 발표, 특히 중국 전체 수출액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
- 중국 경제가 내수 부진으로 힘든 가운데 유일한 돌파구로 꼽히는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 중국 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
 - 전문가들은 미국은 중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 미국 수출이 늘고 있는 만큼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며 미국 경기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대미 수출은 더 증가할 수 있고, 중국 경제도 수출이 살아나면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
- 한편, 중국 경제를 살릴 또 다른 버팀목으로 꼽히는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구축)’ 관련국의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